



지구촌 물 문제 해결
경북이 앞장서겠습니다.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7th World Water Forum 2015

2015년 4월 12일 ~ 17일(6일간)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대구EXCO



새벽을 여는 경북·일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겨레
[통권 396호]
WINTER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이승철 콘서트 경주시내체육관 장영아리아비스트셀러뮤지컬 · 책읽는 여우 인동시민회관 소공연장 항랑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화타의 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더 포지션(매주) 스킵장 콘서트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 (11.30~12.1)	2	3 파스텔콘서트 : 제2 인 울 에이지 인동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25회 가이글 연주회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홀 제2회 형국초등학교 리코더합주단 정기 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7회 안동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인동문화예술의전당 중무홀	4	5 이상우 올리비 기타 듀오와 노래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인동 문화예술의전당 박조홀 제2회 영남태양광합창 연주회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홀	6 제5회 김천예술인전 김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2.6~12.11)	7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공정시장 문화동 대정홀 (12.7~12.8) 가족뮤지컬 '꽃구멍을 후비면'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홀 제9회 예니골(결핵사)합창단 정기 공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 버블 매직쇼 김천시립문화회관	9	10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 연주회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 김지혜 첼로 귀국 독주회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홀	12 전통연희극-무인 정기공연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3	14 코리야 호른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경산 컨벤션센터 행복홀 난바벌 퍼포먼스 점프(JUMP)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14~12.15)
15 제2회 경주 포항 아열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6	17	18 그라시아스 합창단 2013 크리스마스 칸타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9 서라벌 오키나와 앙상블 정기 연주회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 섀도우>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20~12.21)	21 2013 부활 Live Tour Concert in 대구 경산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제9회 이태성오민영밴드 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삼수봉 콘서트 - 그대 그사람 인동문화예술의전당 중무홀
22 제7회 가락첫째동우리가 한이당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3 제2회 청소년합창단(보나푸레) 내한공연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4	25	26 한년콘서트 솔리스트 앙상블 인동문화예술의전당 중무홀	27	28 스텔딩에그 대구 단독콘서트 경산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29	30 김제동 토크콘서트 시즌-5 NO BREAK 경산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12.30~12.31)	31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Movement Steel Art 포항시립미술관 (2013.10.10~1.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진한 사람들, 구슬을 귀하게 여기다 국립경주박물관 (2013.11.26~1.26)	27	28	29	30	31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대구·경북 문화재조사 연구기관 성과전 국립경주박물관 (2013.12.3~2.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황금의 나라, 신라 Silla - Korea's Golden 국립경주박물관 (2013.10.29~2.23)	24	25	26	27	28	

CONTENTS

PRIDE GYEONGBUK

WINTER. VOL.396

Special Theme	04 신도청 상량 및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 열려
	06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열려
알찬살림 부자경북	12 투자 1번지, 경북 곳곳에 국내·외 기업 투자 이어져
웃음가득 행복경북	14 경북도민 '베트남' 모국봉사활동으로 큰 감동
	16 경북도, 6개국 17가족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
밝은미래 희망경북	18 Why? 독도!
	21 경북도,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박멸 결의
도민사랑 일류경북	22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발기인 총회
	23 2013 경북 우수·명품농산물 선정
	24 "도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
	25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쉬어가기	26 이 한권의 책 - 경북 불법 반출 목격담, 기록물 증언 자료 수록한 '잊을 수 없는 그 때'
	27 건강상식 - 겨울철 불청객 인플루엔자를 이기는 생활 속 예방수칙
	28 경북 겨울여행 떠나요!
	32 기쁜 만한 곳 -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프라이드 News+	34 찰칵! 경북의 오늘
	38 도정단신
	42 도의회 소식
	50 경북 알리미
	52 지금 시·군에서는



표지 이야기

300만 경북도민의 '행복 기운'을 담은 '희망의 빛'이 동해에서 환하게 밝아오고 있다

2013 경북관광사진공모전
정태성 「송대말등대 여명」(임산)



WINT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이상욱 · 발행일 | 2013년 12월 03일

· 문이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도민 에너지 하나로 모아 웅도 경북 새로운 시대를 열자!

신도청 상량 및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 열려



경상북도는 11월 5일 안동시 풍천면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의장, 주요기관 단체장, 현장 공사관계자,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 도민 신청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 상량 및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상량식은 건물의 골조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지막 종도리를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전통 의례에 따른 상량고유제, 신도청 및 의회청사 종도리 상량 및 도민 희망 기와 올리기 신청자가 참여하는 기와 올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고유제는 신청사의 무사 준공과 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상량문을 지은 김창희 전 의성 향교 전교가 직접 상량문을 낭독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상량은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내빈 등이 참여해 상량문이 봉안된 종도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신도청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열린 희망 기와 올리기 행사는 지난 3월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인터넷포털을 통해 신청 받은 도민 13,000여명의 이름을 기와 뒷면에 음각·제작한 후, 도청 및 도의회 청사 지붕에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날 각 시·군 대표로 참석한 희망 기와 올리기 신청자들과 함께 신도청시대의 성공을 바라는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희망기와를 신청사 지붕에 안착시킴으로써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경북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은 도청이전신도시인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 총사업비 4,055억원(국비 1,514, 도비 2,541)을 투입하여 부지 24만5천㎡, 연면적 14만3천㎡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경북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인텔리전트가 집약된 실용적인 청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도청 및 도의회 청사, 복지1·2동 등 총 4개동으로 건립되며, 모든 건물을 전통 기와지붕으로 건축하여 경북의 정체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청사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청사는 지붕층 공사가, 도의회 청사는 외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골조공사와 실내의 마감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실내 인테리어 및 시운전을 거쳐 도청이전 목표인 2014년 말까지는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도 2012년 9월 1단계 개발구역 4,805㎢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상·하수도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유관기관 이전, 주택, 학교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도청이전은 미래 경북의 백년대계를 여는 역사적 과업으로 경북의 혼과 정신을 되찾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지역 균형발전 및 경북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상량식은 신도청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무대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300만 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웅도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KOREA
국내 최초 실크로드 사전 발간,
실크로드 동단기점 국제사회 공인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열어

PROJECT



경상북도는 11월 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한국문화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소설가 김주영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실크로드 기획위원, 추진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실크로드 기념비’를 제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1년의 성과를 담은 영상물을 시작으로 김남일 실크로드 추진본부장의 성과보고,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에 동행했던 소설가 김연수 작가의 탐험대 소감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1,900여개가 넘는 표제어를 담은 국내 최초 실크로드 사전과 실크로드 도록(육로편)을 발간한 한국문화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과 한국문화계의 거장이며,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소설가와 국내 저명 작가와 화가가 공동집필한 실크로드 기행소설 ‘천국 혹은 낙원의 길’을 각각 김관용 도지사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프로젝트 1년의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60일간의 탐험기록을 담은 사진과 성과 결과물, 또 탐험에 사용되었던 실크로드 탐험차량과 탐험복, 탐험대원들이 실크로드 국가를 탐험하며 선조들의 발자취와 흔적을 기록하고 담은 기행수기,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펼쳤던 전통공연 의상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실크로드 탐험의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경주가 실크로드 국가와 교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마련과 실크로드 동단이 경주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경주에서 개최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와 중국에서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여 국내외 학계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크로드 거점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중국 섬서성 간 자매결연 체결(2013. 4. 5), 경상북도-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우호협정 체결(2013. 8. 1), 경주시-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간 우호협정 체결(2013. 8. 2), 경상북도-이란 이스파한시 간 실크로드 공동협력 선언(2013. 8. 20) 등 실크로드 거점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한반도 중심 실크로드 기록사업을 위해 실크로드 최고의 권위자인 정수일 소장의 저술로 실크로드 3대 간선, 5대 지선을 총망라한 표제어 1,900여개의 국내 최초 실크로드 사전을 편찬했으며, 실크로드 도록을 편찬하여 실크로드 연구 지침서를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이 밖에도 한국 문화계의 거장인 소설가 김주영 작가와 국내 저명 작가와 화가의 공동 저술로 실크로드 기행소설이 출판되

었으며, 경상북도 경주를 시작으로 이스탄불까지의 실크로드 전 구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KBS 파노라마’ 다큐멘터리를 2부작으로 제작·방영하고,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를 생생하게 기록하며 탐험 여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KBS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 10회 연속 방영되기도 했다.

프로젝트 추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는 2차로 나누어 운영, 1차로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시안까지의 구간에서는 6개 팀 76명의 탐험대원이 15일간 5,066km를 탐험하며 신라인들의 흔적을 찾고 중국 시안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는 통설을 깨고 경상북도 경주가 실크로드 동단임을 확인시켰다.

2차 탐험대는 1차 탐험대의 종점인 중국 시안을 출발하여 실크로드 7개 국가 국경을 넘으며 45일간 15,881km의 긴 탐험 중에 경주가 실크로드 동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문화와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홍보 등 한국의 정신과 혼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양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탐험 여정에서 중국 시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이란 이스파한, 터키 이스탄불 등 실크로드 거점 4개 국가와 우호협력기념비를 건립한데 이어 ‘코리아 실크로드 기념비’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설치함으로써 실크로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상북도의 의지를 표명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에 있던 실크로드를 깨웠고, 중국 시안이 실크로드의 동단이란 국제학계의 통설을 깨고 경주가 실크로드의 동단임을 국제사회에 공인 받았다”며, “코리아 실크로드 연구에 등불이 될 국내 최초 실크로드 사전을 발간하고, 실크로드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문화 융성 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해로(海路) 재조명과 탐험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REA SILK ROAD PROJECT



KOREA
SILK ROAD
PROJECT



+ 코리아 실크로드, 길 위에 길을 열다!



KOREA SILK ROAD PROJECT



KOREA
SILK ROAD
PROJECT



「성공기업 투자1번지, 경상북도」

경북 곳곳에 국내·외 기업 투자 이어져



한국·프랑스 합작기업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투자

경북도·영천시·경자청 ↔ 한호산업(주)·(주)PENOX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11월 13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내기업 한호산업(주)와 프랑스기업인 (주)PENOX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2천만불을 합작투자하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21,387㎡의 사업부지에 공장을 건립, 내년 말부터 자동차용 고급 배터리 첨가제를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 친환경발전소 건립 투자양해각서 체결

대림산업(주) 1조 5000억원 투자, 1천 880mw 전력 생산 계획

경상북도는 10월 31일 고령군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박용환 고령군수, 김운 대림산업(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림산업(주)와 고령 친환경 천연 가스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고령군 성산면 일원 23만㎡(7만평 규모) 부지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1천88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고 경북도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6년 착공,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8년 발전소가 완공돼 30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주), 변함없는 경북사랑 올해도 이어져

경북도와 구미시, LG디스플레이(주)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경상북도는 9월 1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정철동 LG디스플레이(주) 부사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 임준구 구미시의회의장, 김용창 경북상공회의소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디스플레이(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Display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주)는 2015년 12월까지 8,326억원을 투자, 고해상도 화질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증가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주), 경북에 대규모 투자

경북도·상주시 ↔ 한국타이어(주)·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MOU

경상북도는 9월 12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서승화 한국타이어(주) 대표이사 부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대표이사 사장, 성백영 상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주)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상주시 일대에 일반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535억원을 투자하여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타이어상품 테스트 및 시험용 타이어 제조 시설 등을 건립하고, 371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인쇄잉크 세계1위 합작기업, 영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경북도·영천시·경자청 ↔ (주)화진·(주)DIC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9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천시,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과 함께 투자사인 (주)화진 및 (주)DIC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화진과 일본기업인 (주)DIC(大日本 Ink Chemical Corporation) 두 회사는 올 연말부터 3천만불을 투자하여 6만㎡의 사업부지에 건축면적 2만8천㎡의 공장건립에 들어가 내년 5월경부터 자동차용 우드그레인 및 내장재 도장, IPE제품들을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283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경북도민 ‘베트남댁’ 모국봉사활동으로 큰 감동

베트남 팜녕성·하이퐁 지역에서 의료 및 교육봉사 실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 봉사활동에 나서 경북도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고향 베트남에 새겼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문화인재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여성 9명과 김천의료원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 13명 등 봉사단 27명이 베트남 팜녕성, 하이퐁지역에서 의료봉사와 교육봉사를 펼쳤다.

봉사단은 의료팀과 교육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베트남 산골마을 주민들과 만났다. 의료팀은 현지 주민 1,000여명에게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분야에 봉사를 실시했고, 교육팀은 3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 키우기 교육, 미술교육, 작은 운동회, 영상물 상영, 만들기 등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교사와 양국 교육제도에 대해 간담회도 개최했다.

봉사단으로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현지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 수행, 의료봉사에서 문진표 작성, 의사와 환자간의 전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1인 2역을 독려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현지 베트남 방송 및 신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취재 보도했다. 특히 베트남 국영 방송 VTV, 하이퐁 THP 방송, 하이퐁 신문사 등에서 봉사활동 취지와 이민 여성 인터뷰 등을 곁들여 주요행사로 크게 보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주군 다문화센터 소속 누엔티끼우디엠푹(25세)씨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고,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봉사 기회가 주어지면 의료관련 전문용어를 더욱 공부하여 좋은 통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교봉사에 참여한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박수아(35세)씨는 “봉사단과 함께 고향에서 직접 봉사를 해보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모국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과 함께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큰 기회가 되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하는 소망도 함께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봉사단은 흥당초등 랑자이 겨우반 수상학교 전교생에게 교복 80벌을 전달하고, 봉사단원이 현지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모금하여 배터리를 기증하고, 하이퐁 두선초등학교에는 학용품 등도 구입하여 지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봉사활동을 통해 양국 간 가교 역할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결혼이민여성 출신 국가를 대상으로 도내 다문화가정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어머니
참 많이
보고싶었습니다!

경북도, 6개국 17가족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

“엄마, 이렇게 보고 나면 앞으로 또 언제 뵈지 모르겠지만, 제가 곁에 없어도 항상 마음만큼은 이 딸이 함께 할게요.”

2003년 한국으로 시집온 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손녹숨마이(봉화)씨는 경상북도를 찾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직접 쓴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적셨다. 손녹숨마이씨는 2003년 결혼 후 자녀 두 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중 2012년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봉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로 일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태국자조모임과 나눔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가정이다.

경상북도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간 베트남 3명, 태국 4명, 인도네시아 3명, 몽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키르기스스탄 1명 등 총 6개국 17가족을 초청,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경북도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경북도에서는 10월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환영 행사를 열어 결혼이민여성들과 친정부모, 사위와 외손자·손녀의 첫 상봉을 주선하고, 10월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4일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또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등 도내 3개 의료원에서는 사위나라를 방문한 장인·장모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는 10월 23일 불국사 등 경주 투어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관람 및 플라잉 공연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그 후에는 서울로 이동하여 63빌딩과 광화문, 경복궁 등 다양한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초청한 가족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초청했으며, 가급적 결혼이민여성이 결혼 후 친정부모와 서로 방문한 사실이 없거나, 다자녀가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다문화이해강사, 통번역서비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을 우선 초청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 그동안 초청받지 못했던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그중에서 베트남 쯔엥 티 디엠니(경산)씨와 마르카에바 무리나(울진)씨는 사위들이 자비로 장인까지 초청하는 등 장인·장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다문화가족은 글로벌 경북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한국으로 시집과 우리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의 꿈과 희망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독도 현지에서 한복 패션쇼 행사

경상북도는 11월 1일 독도 선착장에서 '사랑해요 독도'라는 주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한복 패션쇼를 개최, 어린이 패션쇼로 강강수월래, 합창, 꿈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1부 행사를, 패션모델이 궁중의상, 전통한복, 모던한복, 바람의 옷을 주제로 독도와 하나 되는 2부 한복 패션쇼를 진행했다.

경북도,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와 대응전략 학술대회 개최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 학술심포지엄

경상북도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주관으로 10월 31일 경북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와 당사국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의 원인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와 학자 5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 10월 18일에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주관으로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 2000년 이후 일본 학계의 독도 및 동해 관련 연구들을 '인문', '사회', '언론', '교문서' 등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동아시아 도서영유권의 갈등 현황에 대해 고찰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 독도 상륙

경상북도는 '독도의 달' 10월을 맞아 10월 29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보존회 주관으로 전수자와 젊은 상비군 등 70명이 참여하여 독도에서 차전놀이를 공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경북도, 2013 안옹복예술제 안동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안동 오부공원에서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는 주제로 '2013 안옹복 예술제'를 개최, 전국 7개시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 독도 플래시몹을 펼치고,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안옹복재단이 주관한 행사는 지난해까지 울릉도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경상북도 시·군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제3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시상 및 전시회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10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제3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 미술작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손만식(청도)씨 등 입상자에게 시상했다. 입상작은 대상 외에 최우수상 4명, 우수상 8명, 청소년부에서 대상 2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8명, 특별상, 특선, 입선 등 총 869명이며, 이들 수상작들은 10월 10일~13일까지 울릉군한마음회관, 10월 16일~19일까지 경북도립안동도서관, 10월 21일~24일까지 서울대입구역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회를 가졌다.



경북도, 독도 국민가요 '나의독도 오! 대한민국' 음반 내놔

대중성과 힘찬 리듬이 특징, 노래 통한 독도사랑 홍보



경상북도는 독도 국민가곡 제작·보급에 이어 독도 국민가요 '나의독도 오! 대한민국' 음반을 정부단위 최초로 제작하여 누구에게나 음원을 무료로 배부하는 등 대중가요를 통한 독도사랑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독도가요 '나의독도 오! 대한민국'을 부른 가수 정수라와 MBC 가수왕과 KBS 가요대상을 수상한 가수 전영록이 함께 부르고, 노래가사와 제작 총괄은 SBS 김정택 예술단장이 맡았으며, 대중성과 힘찬 리듬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담당부서 : 미래전략기획단 053)950-2871

독도는 한국 땅!

미국 전역 주요 지상파 통해 다큐멘터리로 방영

‘독도는 한국 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미국 전역에 주요 지상파를 통해 방영되고 있어 화제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열린 2013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를 통해 울진, 울릉도, 독도 등 경북 동해안의 아름다운 비경과 한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영상과 해설을 덧붙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미국 맨하탄 소재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사 ISEA 커뮤니케이션스가 45분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ISEA 조현준 대표는 주낙영 행정부지사가 2012년 7월까지 3년간 뉴욕 부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경북도와 두 번째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뉴욕 한복판 대형전광판에 이스탄불-경주엑스포, 경북의 새마을 세례와, 경북의 글로벌 투자유치 환경 등 경북도정을 알리는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독도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미국 전역에 방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MSG(뉴욕)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 말까지 ABC(미네apolis 등), NBC(샌디에고 등), CBS(시카고 등) 등 주요 지상파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 연말까지 미국 전역 시청권내 80% 편성이 예상되어 1억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도 수호신 안용복기념관 개관!

일본 막부 앞에서 우리 땅 독도 주장한 안용복 업적 재조명

경상북도는 불굴의 의지로 독도를 지켜낸 조선 숙종조의 인물 안용복의 숭고한 업적과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영토 수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0월 8일 안용복기념관을 개관했다.

안용복기념관은 독도를 관망할 수 있는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 2010년 7월 착공, 대지 27,129㎡, 건축 연면적 2,090㎡, 지상2층·지하1층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올해 6월에 완공했다.

기념관 2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안용복이 조선시대에 울릉도·독도를 이용하고 활동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강당과 4D영상관 시설을 갖추어 독도교육의 산실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정보검색기, 포토존 등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실외에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도일을 감행한 안용복과 그 일행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안용복의 넋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사당도 마련했다.

특히 3층 옥외에는 날씨가 쾌청하면 육안을 통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전망대를 마련, 망원경을 통해 독도와 인근해안 지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울릉도·독도를 수호한 안용복의 진취적인 정신을 후세대가 기억하고 또한 세계로 전파해야 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패턴의 관광소재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 상징 소나무를 지켜라!” 민·관·군 혼연일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소나무 고사목 발견 즉시 신고 도민들에 당부

경상북도는 11월 11일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의원, 송필각 도의회의장, 신원섭 산림청장, 박승호 포항시장, 도의원 및 지역 시의원, 산림종사자, 해병대 등 민·관·군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박멸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함께 하며 방제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으며, 특히 “소나무 고사목은 발견 즉시 신고하여 단 한 그루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경북도는 포항시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재선충병을 완전박멸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전량 제거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의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된 이래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12개 시·군에 확산 되었으나, 방제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영천시, 상주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고 현재 10개 시·군에 발생된 상태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약 53만 그루에 이른다. 가해수종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로서 피해 초기에는 목은 잎이 아래로 처지고, 30일 후부터는 새잎도 아래로 처지면서 급속하게 갈색으로 변색되어 발생년도에 80%, 익년 3월까지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여름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급격한 증식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가재난 차원에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발기인 총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통합 및 기능 확대, 내년 4월 공식출범



경상북도는 11월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 독립운동사의 체계적인 수집·조사·연구·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경북인의 독립운동정신을 조명하고, 선양·계승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주낙영 행정부지사, 이인술 애국지사, 김능진 독립기념관장 등 관계기관과 문화·인문·학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설립발기인으로 참석했으며, 재단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은 총 18인으로 경북출신 자정순국가수를 뜻하는 것으로 나라에 대한 충의를 담고자 했다.
(※ 자정순국 :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저항한 운동)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안동 부시장, 대구지방보훈청장, (사)의성김씨천상문화보존회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고, 이인술 애국지사, 김희곤 안동대 교수 등 4명이 선임직 이사로 선출됐다.

재단법인 설립은 현재 (사)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 중인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합하고, 기능을 확대·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제정·시행과 함께 올해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 추진되어 왔다.

경북도·안동시와 기념사업회는 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고용을 기념관이 승계하기로 하고, 법인 운영규정이 제정되는 대로 승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국가보훈처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연내 법인설립을 마치고, 내년 초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직원 임용, 관장선임 등 조직·인력체계를 갖추고 4월에는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단법인은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전시 △독립운동가 발굴 △나라사랑 교육·연수·체험 △독립운동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 임하면 천전리 현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일원 16만3천㎡ 부지에 연면적 6,611㎡,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전시관·교육문화관, 독립운동체험학습장 등으로 구성,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면 경상북도 전체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어 가족 중심의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과 체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가 인증한 경북우수농산물을 소개합니다!

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8개소, 명품화육성대상자 1개소

경상북도는 10월 23일 농업기술원에서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회를 개최, 심의결과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8개 업체와 명품화육성대상자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는 브랜드 개발·등록, 포장디자인 개발비, 판촉·홍보비, 친환경인증비 등을 지원하고, 명품화사업대상자는 업체당 2억원 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는 포장재에 마크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업체 중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 농식품을 발굴·육성하여 2012년까지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198개소 87품목, 명품화육성대상자 21개소 15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2013 경북 우수·명품농산물 선정내역]

우수농산물 선정업체(8개소)

경주 역전농장(계란), 안동 안동마 부용농산 영농조합법인(마늘, 마분말), 영주 대성2농장(계란), 상주 단미로하스 영농조합법인(오디청, 오디즙, 오디차, 오디퓨레), 경산 친환경대추작목반(대추), 의성 삼환식품(조청 쌀엿), 청도 새얼 바이오푸드 농업회사법인(미니리움료), 예천 영농조합법인 연자 방아친환경쌀(쌀, 찹쌀)

명품화사업 육성대상자

안동농협 더햇식품사업소 '안동 생명의 콩'을 이용한 두부



김관용 도지사-시장·군수 새로운 천년 상생발전 결의



경상북도는 10월 23일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의장, 이철우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 지역 기관단체장과 역대 자랑스런 도민상 수상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2013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도민의 귀감이 된 스물여덟 분을 선정하여 '자랑스런 도민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관용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새로운 천년, 도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3년 도민상 수상자]

▶ 본상(23명)

포항시 이상해(57, 남), 경주시 김기범(57, 남), 김천시 최태자(61, 여)
안동시 권기창(51, 남), 구미시 장용웅(70, 남), 영주시 이재옥(53, 남)
영천시 김해식(60, 여), 상주시 김황식(63, 남), 문경시 권태갑(65, 남)
경산시 이재국(68, 남), 군위군 김성운(83, 남), 의성군 이원희(65, 남)
청송군 손규현(57, 남), 영양군 박종태(69, 남), 영덕군 김실광(67, 남)
청도군 박영상(77, 남), 고령군 임정배(60, 남), 성주군 이시웅(69, 남)
칠곡군 이병곤(64, 남), 예천군 안성식(53, 남), 봉화군 이유정(62, 여)
울진군 황재길(60, 남), 울릉군 최실근(69, 남)

▶ 특별상(5명)

문화예술 표재순(76, 남)
도정발전 정수일(79, 남)
도정발전 손재근(65, 남)
도정발전 이권재(70, 남)
선행봉사 석선자(69, 여)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2013 경북농업인대상에 청도군 박종우씨 영예



경상북도는 11월 11일 농업인회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의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올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농업인대상을 시상하고, 우수 농수산물 및 지역 쌀 브랜드 전시, 농업인 단체별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2013년 농업인대상은 총 9명으로 전체 대상에는 축산부문의 박종우(청도군 풍각면)씨가 수상하고, 분야별로는 식량생산 이태근(포항시 흥해읍), 친환경농업 안종윤(상주시 은척면), 과수·화훼 송득수(김천시 조마면), 채소·특작 정경화(영양군 청기면), 수출 강창구(상주시 사벌면), 가공유통 이복만(문경시 모전동), 농어촌공동체 남호원(봉화군 봉화읍), 여성농업인 전외자(영천시 자양면)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 지역농정 발전에 기여한 시·군을 시상하는 농정평가에서 대상은 예천군, 최우수상은 안동시, 봉화군, 우수상에는 영주시, 상주시, 청도군, 울진군 등 7개 시·군이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 우리 문화재 불법 반출경위 증언록 전국 최초 발간

불법 반출 목격담, 기록물 등 증언자료 수록, '잊을 수 없는 그 때'



경상북도는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와 함께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경위 증언록 발간 사업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 완료하고, 우리 지역의 불법 반출 목격담, 기록물 등 증언 자료를 수록한 '잊을 수 없는 그 때'를 발간했다.

이는 문화재반출에 관한 증언록으로는 전국 최초로 발간, 일제시대 등을 거치면서 경북 지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각종 문화재의 반출경위 등을 추적 조사한 470여 페이지 분량으로 경북지역 문화재 훼손사례를 23개 시·군을 직접 답사하며 채집한 주요 문화재 반출에 관한 증언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유물의 훼손 및 반출에 관한 향토사학가 등의 상세한 증언과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왕자태실 유물에 관한 도굴 실태 등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증언록 발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증언과 체보를 접수, 올해 연초부터는 조사단을 구성해 지역별로 전해져 오고 있는 문화재반출에 관한 증언을 채집하기 위해 시·군 지역별 향토사학가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등과의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도굴, 약탈 등을 통한 불법 반출에 관한 목격담과 증언을 수집하는데 집중했으며,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각종 문화재에 대한 도굴이나 훼손 또는 불법 반출에 관한 기록물이나 사진 등의 채집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각종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를 방문, 지역 사정에 밝은 향토사학가와 문화재 원로 등의 면담을 통해 관련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동시에 관계자들의 증언을 녹취, 수록하기도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일본, 미국 등 20개국에 152,910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로 되돌아온 문화재는 9천여점에 그치고 있다.

▶ 담당부서 : 문화재과 053-950-3576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사람 많은 장소는 피하라!

날씨가 차가운 겨울이 되면 항상 '독감'이 걱정이다. '독한 감기'라고도 생각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와는 전혀 다른 병이다.

독감은 바이러스가 코나 목, 폐를 침범,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겨울에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이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매우 위험한 병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발병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간단한 대비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 효과의 지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10~12월이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독감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 45만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감염되어 면역이 형성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해 인플루엔자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독감은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수칙, 우리 모두 기억하자!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
- 기침·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킨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한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새해 '좋은 기운' 맛으러 떠나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랑이 꼬리지역으로 한반도 최고의 일출을 자랑한다. 새해 호랑이의 넘치는 기운을 받으며 상생의 손 사이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 광장

🕒 2013. 12. 31 ~ 2014. 1. 1 / 2일간

📖 주요행사 : 희망가원 대형 박 터트리기, 희망2014 불꽃쇼, 1만명 떡국 나눔 체험행사, 관광객과 함께 지구촌 돕기 감사나눔 행사 등



일월산

해발 1,219m의 고봉으로 산세가 하늘에 우뚝 솟아 웅장하고 거대하며 산정은 평평하다. 제일 높은 봉우리인 일자봉에서는 맑은 날에 동해바다가 흰하게 보이며, 동해의 일출과 월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영양군 청기면 당리

☎ 054)680-6062, 6067

📖 황씨부인당, 용화사, 주실마을 등

🌐 <http://festival.yyg.go.kr/home/festival>



삼사해상공원 해맞이축제

동해의 맑은 정기가 서린 삼사해상공원은 청정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관이 아름다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단위 행락인들이 줄을 잇는다.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 054)730-6790

📖 영덕풍력발전단지, 장사해수욕장 등

🌐 <http://tour.yd.go.kr>



망양정 해맞이공원

잘 꾸며진 경관이 인상적인 해맞이공원과 망양정에서 내려다보는 수려한 해안선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특히 새해 첫날 올린 대중 타종소리를 들으면 일출과 함께 감성에 젖게 해준다. 탁 트인 바다의 조망이 일품이다.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산포리 716-1)

☎ 054)789-6921

📖 성류굴, 죽변항, 덕구온천 등

🌐 www.uljin.go.kr



내수전 일출전망대

내수전 일출전망대로 가는 길은 수많은 동백나무와 마가목 등이 터널을 이룬 가운데 전망대에 올라서면 넓게 뻗은 수평선과 청정한 바다위의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관음도, 죽도, 저동항과 마을, 행남등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 054)790-6394

📖 촛대바위, 관해정 등

🌐 www.ulleung.go.kr/tour



신나는 겨울축제 즐기러 GoGo~

암산얼음축제

하얀 겨울의 아련한 낭만과 추억이 서려있는 곳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과 전국 최고의 천연빙질을 자랑한다. 영남권에서 드물게 열리는 겨울축제로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가져다준다.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 일원

🕒 2014. 1월 초

☎ 054)840-4311~2

📖 팽이치기, 썰매타기, 스케이트타기, 산천어맨손잡기, 송어낚시체험, 빙어낚시체험, 얼음축구, 얼음미끄럼틀



안동 석빙고 장빙제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인 안동은어를 저장했던 보물 제305호다. 얼음이 녹지 않고 부혀꾼들이 무사히 강 얼음을 채빙하기를 바라는 기원제, 얼음을 잘라내는 채빙과 얼음을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운빙, 석빙고에 재는 장빙 등 옛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안동시 암산유원지 일원

🕒 2014. 1. 17(금)

☎ 054)853-4107

📖 얼음자르기(채빙), 얼음나르기(운빙), 얼음채우기(장빙)



201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아시아에서 열리는 유일한 아이스클라이밍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빙벽장 정복을 위해 27개국 150여 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모험과 스릴을 감상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얼음골

🕒 2014. 1. 11(금) ~ 12(일)

☎ 054)870-6206

📖 본경기, 얼음썰매장, 추억의 먹거리

📍 <http://tour.cs.go.kr>



정월대보름축제

세시풍속을 전승 보존하여 화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 재현과 휘영청 보름달밤을 수놓는 힘찬 불기둥을 보며 풍년농사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 모닥불에 콩을 볶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눌 수 있다.

청도군 청도천 둔치

🕒 2014. 2. 14(금)

☎ 054)370-2371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민속연날리기 대회,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윷놀이, 세시음식 나누어먹기

📍 <http://tour.cd.go.kr>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지난해 액운을 활활 타오르는 달집 속으로 태워 버리고 2014년 새 희망을 염원한다. 새해 기원문 작성으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도 익히고 넘치는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감천백사장(김천시 지좌동)

🕒 2014. 2. 14(금)

☎ 054)420-6064

📖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대보름 음식체험,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

📍 www.gc.go.kr/culture



100년 전 구룡포 생활상 볼 수 있는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

겨울에 나는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의 어촌마을

경북 포항시 구룡포, 동해의 해돋이 명소이자 한반도 지도에서 보면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 바로 아래 동네. 현재는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항구로, 경북 동해 어업 전진기지 중 한 곳이다. 또한 겨울이 되면 고소한 맛으로 전국의 입맛을 호령하는 과메기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바다에서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1마리가 떨어졌다는 전설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되었다지만 1923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구룡포항을 축항하고 동해 어업을 점령한 침탈 현장으로 지금도 일본인 가옥 등 그 시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촌마을이다.

요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일제강점기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조성되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근대문화역사거리 맨 끝에 위치한 구룡포 근대역사관. 이 건물은 1920년대 일본 가가와현에서 이주해 온 하시모토 진기치가 지은 2층 일본식 목조가옥으로 해방 후 개인주택으로 사용돼 오던 것을 포항시가 매입·수리해 '구룡포 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룡포어업조합장을 지낼 만큼 구룡포의 큰 손이었던 하시모토 진기치의 자택이었던 이 건물 입구는 돌출형 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가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당시 이 건물 1층은 하시모토의 집무실로 사용되어 끊임없이 손님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1층에는 집무실 외에도 딸들의 방, 하시모토 부부가 사용하던 방, 부엌과 식당이 있었다. 현재는 2층을 딸들의 방으로 복원 재현해 놓고 있다.

2층의 방 세 개는 후스마(나무틀을 짜서 양면에 두꺼운 형갈이나 종이를 바른 문)로 분리해 놓았다가, 손님

들이 왔을 때는 후스마를 떼어낸 후 2층 전체를 사용했다.

특히, 2층은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장식해 놓았으며, 방과 복도 사이에 나무로 된 창살을 넣어 통풍과 빛이 잘 들어오게 했다. 2층에서는 구룡포 거리 일대가 내려다 보인다.

또 100여 년 전 모습들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다. 문화해설사가 항시 상주해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00여 년 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룡포 근대역사관'과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인식시켜 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김락현 기자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경상북도는 11월 20일 도청 전정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대공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송필각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과 도내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지난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경승용차 6대와 장애인리프트차량 6대를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12곳에 전달했다.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73일간 진행하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목표를 지난해 102억 600만원 보다 4.6% 늘어난 106억 8000만원을 잡고, 이날부터 언론사 사랑의 계좌모금, 착한가게, 직장인 나눔 캠페인, ARS(060-700-1212) 등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성금은 전액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생계·의료비와 장애인가정 환경개선사업, 월동난방비, 교육·급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된다.



참각! 경북의 오늘 NEWS+

필리핀 알바이주와 농업·새마을 교류협력 방안 협의 필리핀 알바이주 방문단 일행 경북도 방문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7일 도청 접견실에서 필리핀 알바이주 페르난도 곤잘레스 국회의원, 파티 곤잘레스 리가오 시장 등 경북도를 방문한 필리핀 알바이주 방문단을 맞아 새마을 운동과 경북의 농업기술 전수방안 등 양 지역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정책의 경험 전수, 특히 지구촌 공동체 운동과 봉사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경북형 새마을 세계화 운동의 전수를 원하는 리가오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천위(不遷位), 만리를 가는 사람의 향기 경북도, 제6회 증가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8일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불천위, 만리를 가는 사람의 향기’라는 주제로 ‘2013 증가포럼’을 개최, 불천위와 관련한 학술강연과 전시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도내 및 타 시·도의 종손·종부, 유림단체, 학계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했던 불천위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했다.

불천위(不遷位)란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과 학문이 높은 인물의 신주를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를 말하는 것으로, 종가의 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원형 자료이다.

美 보잉社 BAMRO센터 첫 삽, 영천에서 기공식 경북 항공 산업 육성 중요한 기반 확보, 내년 10월 사업개시 목표

경상북도는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10월 14일 영천시 녹전동 경북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전정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조셉 송 보잉 한국방위사업부문 대표, 지역 항공관련 기업과 보잉 협력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 보잉社 BAMRO(보잉MRO센터: The Boeing Avionics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Facility)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美 보잉社 BAMRO센터 기공식은 지난해 9월 MOU 체결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영천시 녹전동 일원 14,052㎡ 부지에 1단계로 건축물 1,011㎡ 규모로(향후 단계적 확장 계획) 최대 1억 달러를 투자, 2014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대구 공군기지(K2)의 F-15K 관련 항공전자부품 테스트 및 정비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도,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돕기에 발 벗고 나서

성금모금,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의료봉사, KT무료통화 지원

경상북도는 태풍 '하이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돕기 위해 11월 14일과 15일 KBS 및 MBC에서 진행한 필리핀 태풍 피해돕기 모금행사에 김관용 도지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석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지역 출신 필리핀 결혼이민자 및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피해지역 출신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은 11월 15일 기준 17개 시·군, 58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북도에서는 피해지역 출신 도내 다문화가족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필리핀 왕복 항공권, 체류비, 의약품(상비약) 등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KT의 협조를 받아 피해지역 출신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가족과 무료통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본격적인 필리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내 3개 의료원, 의료단체를 주축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및 의료관련 물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천년고도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본격화

신라왕궁, 황룡사 등 8개 유적 복원·정비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21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변영섭 문화재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 건립부지에서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청, 경주시 3개 기관이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천년의 왕경 8개 핵심유적에 2025년까지 총 9,450억원(국가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대표 고도(古都)로서 경주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신라왕궁과 황룡사 복원사업을 지난 대선 공약사업으로 건의, 새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맞추어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었다.



경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 이야기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에서 재능 나눔 봉사활동

경상북도는 10월 12일 김관용 도지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문경시 최북단 도계지역인 동로면 적성리에서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건강상담 및 돋보기 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과 노후주택에 대한 도배, 방충망 교체, 전기배선 정비, 벽화 그리기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은 도내 오지마을을 선정,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제공 등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3일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와 7월 12일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자원봉사 활동이다.

세네갈에도 새마을을 전수해 주세요!

주한 세네갈 대사, 경북 새마을운동 보급 요청

김관용 도지사는 10월 11일 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의 경북도청 방문을 맞아 세네갈에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정책의 경험을 전수받아 세네갈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주한 세네갈 대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올해 12월 봉사단 파견을 목표로 봉사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KTX 시대 활짝

KTX 포항역사(驛舍) 신축공사 기공식

경상북도는 10월 4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현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무부위원장, 관련기관 단체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지역 70만 도민의 숙원이던 고속철도 시대를 개막하는 KTX 포항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항 신축역사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원에 연면적 6,200㎡, 지상 3층, 1일 1만7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KTX 직결노선이 내년 말 완공되면 포항에서 신정주역을 거치지 않고도 서울까지 2시간 21분이면 갈 수 있는 KTX 시대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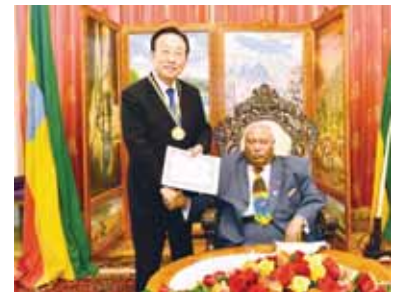
김관용 도지사, 새마을운동 전수 공로 에티오피아 정부 훈장 수훈

에티오피아 대통령, 새마을운동 확산 지원 요청

김관용 도지사는 9월 23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 기르마 월테 기오르기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에서 정부 각부 장관과 주요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티오피아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여 양국 간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에티오피아 정부 훈장을 수훈했다.

이 자리에서 기르마 월테 기오르기스 대통령은 "앞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새마을운동이 전국 농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모델이 에티오피아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수피아 아흐메드 재정발전부 장관과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향후 동아프리카지역 새마을 현장교육을 담당할 새마을연수센터 구축, 새마을리더 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 관련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1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경상북도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야마현에서 개최된 '제1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차기 개최지(2014년 제16차 교류회의, 경북 구미시 개최예정) 자격으로 참석,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한·중·일 경제·인문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패널 발표를 통하여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뛰어넘어 문화와 산업이 연계·융합되는 경상북도의 '초한류 뉴컨텐츠 중심의 국제화사업'을 소개하고 공동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도내 어촌계 마을어장에 어린해삼 45만 마리 방류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고소득 경제성 품종인 어린 돌기해삼 45만 마리를 11월 11일부터 12일 사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연안 4개 시·군 마을어장 중 적조 피해가 많은 어촌계를 선정하여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해삼은 올해 6월 중순 자연산 어미로부터 채란하여 140일 정도 사육한 1~5g내외의 건강한 어린해삼으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 표고버섯, 경북 최고 친환경농산물 선정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품조성과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전시·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개최한 '2013년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문경시 영순면 이정무씨가 재배한 유기농 표고버섯을 최고의 농산물로 선정했다.

국가지점번호 활용한 긴급구조 협업 시범 실시

경상북도는 11월 8일 영천시 마현산 일원에서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영석 영천시장, 지역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긴급구조 및 산불진압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해안, 들만 등 비거주지역에서 소방서, 산림청 등 기관별로 개별 설치·운용하던 위치표시체계를 하나로 통일,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부시장 경북도 방문 교류사업 협의

경상북도는 11월 7일 도청을 방문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어치르바트(Ochirbat) 도시개발·투자담당 부시장과 몽골 게르촌 정비와 재개발사업 등 경북도와 교류협력사업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어치르바트 부시장의 방문은 지난 10월 몽골에서 개최한 경상북도-울란바타르시 간 '도시·건설분야 교류협력 포럼'에서 경상북도가 제안한 내용의 추진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전국 보육교직원, 김관용 지사에 감사패 전달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어린이 보육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43,654개소, 보육교직원 293,577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육교직원의 권리증진을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전국보육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 항공전자 및 MRO 산업 육성 전략' 국제항공포럼 열어

경상북도는 '경북 항공전자 및 MRO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 글로벌 항공전자 및 MRO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회 경북국제항공포럼을 개최했다. (*MRO :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verhaul))

에너지소외계층에 고효율보일러 설치 지원

경상북도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10월 30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나눔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기초생활가구 등 에너지 소외 500가구에 고효율 보일러 및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유치 성공

경상북도는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34억원을 확보, 도내 25개 대학에 경북형 그린캠퍼스 환경조성과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빌딩용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을 구축하여 그린캠퍼스 및 에너지 명품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환경부 주관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방법, 지도점검 방법, 환경신문고 처리 등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코자 실시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 실시

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 부재시 발생하는 안전·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IT기술로 소방서 등을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안동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10월말까지 65명의 중증장애인 세대에 화재·가스 누출 및 활동감지 센서와 맥박센서, 폐쇄회로 TV(CCTV), 특수전화기 등을 각각 필요에 맞게 무료로 설치, 인근 소방서, 지역센터 등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10월 15일 군위 생활체육공원에서 경북대, 안동대 등 16개 협력교육 기관의 63개 과정 1,000여명의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로! 미래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교육생들의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 경북도, 축복 속에 장애인합동결혼식 거행

경상북도는 10월 15일 안동 M컨벤션웨딩에서 장하숙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장의 주례로 '제18회 경상북도 장애인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날 합동결혼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합이 6쌍, 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합이 2쌍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결혼당사자들에게는 결혼식 및 3박4일의 제주도 신혼여행 비용, 혼수품을 무료로 제공했다.

■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초청, 꿈에 그리던 가족상봉



경상북도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24명을 고국으로 초청, 고령군 대창양로원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의 가족상봉을 주선했다. 도에서는 2010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으로 사할린 방문 사업과 사할린 현지가족 고국방문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할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1세)로 한정된 영주귀국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한인들과 자녀 3만여 명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 2014년도 농촌개발사업 예산 전국 최다 확보

경상북도는 신정부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건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지구 공모에서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전문자문단 검토를 거쳐 6개 분야 110개 지구 총사업비 3,210억원을 신청한 결과, 전국 최다 규모인 2,416억원(국비 1,57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 경북소방,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펼쳐진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3개 분야 5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종합우승에 이어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기쁨을 누렸다.

■ 흰 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10일 영천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 참가자들이 시내 1.2km를 걷는 '흰 지팡이 대행진'을 거행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를 표창했으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흰 지팡이의 날은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1980년에 제정·선포했다.

■ 경북도립대학교, 영주 축산실습장 준공식 개최

경북도립대학교는 10월 8일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영주실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실습장은 영주시 안정면 묵리에 위치, 가축생산 실습실, 축산가공 실습실, 강의실, 연구실, 세미나실 등을 보유한 강의동 1동(646㎡)과, 한우사 1동(500㎡), 돈사 1동(606㎡), 계사 1동(96㎡) 등 총 4개동(1,849㎡)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청도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7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갑 도의회의장, 이종근 청도군수, 지역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100세를 맞이한 도내 100명의 어르신들을 대표하여 청도군 금천면에 거주하는 김봉출·오봉금 어르신께 도지사가 직접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전달하며 장수를 축하했다.

■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김천종합운동장과 21개 보조경기장에서 역동하는 김천에서 비상하는 경북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 23개 시·군의 선수·임원과 동호인 가족 등 12,000여명이 참여하여 축구, 배구, 농구, 게이트볼 등 20개 생활체육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전을 펼쳤다.

■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준공식

경상북도는 잠사곤충사업장 신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9월 27일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종태 국회의원, 박성만 도의회 부의장, 정상진 농수산위원장, 성백영 상주시장 등 양잠관련 기관·단체장, 양잠 및 곤충사육농가,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청사는 부지 149,000㎡, 건축 연면적 5,918㎡, 본관동, 연구시험동, 잠실, 생사생산물, 누에 곤충체험학습관 등을 갖췄다.

■ 경북도, 2014 국제 패트럴 잼버리대회 개최지로 확정

경상북도가 2014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14 제4회 국제 패트럴 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4년 상주 경천섬 일원에서 펼쳐지는 잼버리는 2015년 세계물포럼에 발맞추어 물과 인간에 대한 내용을 주 테마로 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 패트럴 잼버리는 4년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와 친교활동을 통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국제적인 축제이다.

■ 사회복지·보건위생 분야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가' 등급

경상북도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24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3년(201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경북도·울릉군·경북신보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9월 26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강철구 울릉부군수,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경식 의원, 시사투데이 주최 '2013 대한민국 신지식경영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시)은 시사투데이가 주최·주관한 '2013 신지식경영대상'에 지역민들을 대변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계인대賞 수상자로 지난 8월 30일 선정됐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제8대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지역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제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유치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9대 후반기 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도의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은 양질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작되어야" 박병훈 운영위원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특강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박병훈 위원장은 9월 12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이 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박병훈 위원장은 "지역발전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위에서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아래에서 주도하는 성장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진행되어야 하고, 기업운영의 뿌리인 양질의 인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필각 의장, 제13대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장 선출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9월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송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4선 도의원의 경륜과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

임업발전연구회, 산림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는 장세현 정책연구위원장과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에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산림정책 수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우리도의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자칫 폐쇄되기 쉬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산재한 산림을 활용한 휴식과 여가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도의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의 활용,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등 산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9월 2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자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지방의회의 현재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확보방안과 보좌관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참석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경북도의회, 서호주의회와 우호협력의 폭 넓혀 서호주의회 마이클 서더랜드 의장 일행 경북도의회 방문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과 의장단은 10월 7일 서호주의회 마이클 서더랜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의 방문을 맞아, 상호 우호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송필각 의장은 "서호주의회의 이번 방문이 의회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호주의회 의장단 일행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교육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기관과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는 지난 2007년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 서호주에서는 지난 4월 대구에서 개최한 대구경북섬유박람회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65회 임시회 결산〉



■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도정질문 · 업무연찬회 가저 ■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업무연찬을 실시했으며,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도정질문 요지



■ 김원석 의원(교육위원회)

경북도의 마이스터운동 활성화 방안, 마이스터운동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북도의 전략, '지역거점별 소아전용응급실' 개설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때 영·유아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를 함께 갖추는 방안, 경북도의 말 산업 육성이 과잉투자 등 여러 난제들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경북도 말 산업 정책의 중·장기적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박기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 가속화 위한 도차원의 대책,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에 대한 대응책, 원활한 지방재정운용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대구-성주간 상습정체구간 해소소 위해 국도 30호선 도로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대책,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 쌀 관세화 정책에 대한 대책,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자원화 방안과 연계할 대책,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이상웅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여성농업인들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농촌전문형 건강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나홀로 노인 증가에 대한 대책, 경북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북부내륙 봉화-영양-영덕군 연결하는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와 도로구조개선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 토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시내버스가 교육시간대에 운행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및 도내 일자리에 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도민이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 민선 5기 창출된 22만개 일자리의 사후관리 대책, 경북도의 구체적인 물산업 발전계획, 경북도에서도 마시는 병물의 생산과 도지사가 이를 마시고 적극 홍보할 의향, 도내 병물 생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나기보 부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창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10월 18일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 위원장에는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10월 7일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었다.

■ 경북도의회, 2년 연속 의정비 동결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 사전 차단, 주민과 고통분담 함께하는 의정

경상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은 경북도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2014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최종 동결이 결정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번 의정비 동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송필각 의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도민과 교감하는 의회상 구현을 통해 의회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비록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동결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업무연찬 위한 '의원 연수회' 가져

'독도는 우리 땅' 일본망동 엄중경고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연수회에 앞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전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참석자 전원이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독도홍보영상에 맞추어 '일본의 망동 엄중경고 및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예결특위, 도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요사업장인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과 교촌 한옥마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 심의자료 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의 위한 총괄 예산 설명회도 개최했다.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은 사업비 421억원(국비 295, 지방비 126)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교량 복원사업을 추진,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300년 만석꾼 가문의 교촌한옥마을을 조성사업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15억원(국비 108, 지방비 107)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 가져

경상북도의회는 11월 5일 안동시 풍산면 갈전리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송필각 의장, 김관용 도지사, 도의원, 도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을 가졌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은 도의회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송필각 의장의 상량문 봉안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 63명 전원의 상량목 올리기 순으로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 신청사는 경북도 본청과 함께 지난 2011년도에 착공,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전통과 현대양식이 조화롭게 지붕에 기와를 얹어 시공하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 제2차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



경상북도의회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11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재준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266회 정례회 결산〉



■ 42일간 행정사무감사, 2014년 경북도·교육청 예산 심사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정례회를 개최, 11월 6일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정례회 전체 회기 결정을 하고, 이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1일~22일까지 이틀간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하수(청도), 장세현(포항), 황이주(울진), 장경식(포항), 김명호(안동), 강영석(상주), 이영식(안동), 최우섭(교육) 의원이 각각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처리하게 된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전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이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및 현안사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로 4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복잡하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소유권 단독행사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례법 분할 신청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1년 이상)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194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보부족과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이 손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53)950-3464

경북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014년 5월 31일까지 24시간 방역체계 유지

경상북도는 구제역 청정화의 초석을 다지고,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2014년 5월말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23개 시·군 축산관련단체에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시·군은 질병예찰팀을 구성하여 예찰실시, 농가방역교육·홍보,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 방역 추진상황 점검, 농가 소독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2년 이상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아 축산농가들의 방역의식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의 방역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제역·AI 발생 위험시기에 특별방역 점검과 상황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봄까지는 2014년 5월로 예정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시기로 보고 구제역 백신 접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은 축산농가와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유지와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축산 발견시 국번 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2682

경북도, 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할인 확대

지난 1년 간 이용실적 52% 이상 증가함에 따라 할인을 9% → 11% 확대

경상북도과 경북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갱신하여 앞으로 1년간 경북도내 다문화가족 11,856가구에 국제특송(EMS)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년 간 이용실적이 52% 이상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할인 혜택을 기존 9%에서 11%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의 친정 가족들에게 한국 가족들의 소식과 경북 특산물 등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은 해마다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4,372건에 대해 1,49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다문화가족이 국제특송 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 방문 시 외국인등록증, 기타 다문화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053-940-1458) 또는 지역 우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

'경주 동궁원' 으로 가족나들이 떠나볼까?

경주 동궁원은 지난 가을 경주 보문단지에서 첫 선을 보였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휴양지인 보문단지의 초입에 들어선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 동궁원은 식물원, 버드파크 그리고 농업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동궁식물원은 현대의 건축에서 신라시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지붕 양 끝에 대칭으로 치미(고대 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 기와)가 있고, 중앙에는 꽃문양 수막새를 활용해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

안압지를 축소 재현한 연못 위에 안압지에서 출토된 모형 나무배와 열대연꽃이 싱그럽게 떠있는 수생원,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인 판다고무나무, 미인수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나무 등이 무성한 관엽원, 사계절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동궁 식물원에서도 가장 화려한 비밀의 화원 화목원, 한라봉, 레몬, 바나나, 파인애플 등 군침을 삼키게 하는 열대과일과 함께 커피나무, 지중해에서 공수해온 올리브 나무 등이 가득한 열대과수원, 열대 우림에서나 볼 수 있는 카나리아자, 와싱턴야자, 대왕야자를 구경할 수 있는 야자원 등 세계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식물원의 관전 포인트.

버드파크는 포근한 느낌의 '새 동지'를 컨셉으로 디자인, 새 동지의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 다른 조각 몇 만개의 유리를 주문해 일일이 모자이크처럼 맞춰 유선형 유리온실을 완성했다.

버드파크에서는 250종 900여 마리 새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1층 생태전시실에서는 앵무새, 플라밍고, 코뿔새 등의 조류와 함께 수족관을 마련해 펭귄과 파충류, 어류를 함께 전시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층 전시실에서는 색다른 시각으로 새들을 만날 수 있다. 조류도서관을 통해서는 새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오래된 미래를 보다' 전시실을 통해서는 박혁거세와 김알지의 탄생설화와 흥덕왕의 앵무새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부화 온도를 맞춘 부화 체현, 화면을 통해 직접 새가 되어보는 4D 라이터 시뮬레이터 등 흥미진진한 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날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경주만의 역사적 배경을 스토리텔링 한 경주 동궁원에서 올 겨울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보자.



경북의 물림, 명덕의 빛

2014 영덕 중비맞이 축제

2013. 12. 31 (화) - 2014. 1. 1 (수)

송년음악회 2013. 12.31.(화) 20:00~22:00 삼사해상공원장

경북대중 타종행사 2013. 12.31.(화) 23:30~ 2014.1.1(수) 01:20 경북대중각

장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일원

주 관 | 영덕군관광진흥협의회



상주시 직영, 성주봉자연휴양림 한방사우나 개장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한방산업단지내에 있는 성주봉 한방사우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11월 12일 상주시 직영으로 개장했다.

상주시 성주봉한방사우나는 지난 2011년에 준공된 시설로 19,086㎡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643㎡의 규모로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여 사우나, 찜질방, 불한증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우나 냉·온탕에는 건강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우나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사우나에 공급되는 원수는 지하 718m에서 개발하여 공급되어 수온이 25℃ 이상으로 따뜻하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심층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주시 성주봉한방사우나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전국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성주봉자연휴양림과 2012년 개장한 성주봉생태숲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휴양지이다.

상주시에서 성주봉한방사우나를 새롭게 개장함으로써 동학교당, 황령사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13. 12. 31 ~ 2014. 1. 1(2일간)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

